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음역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정보 사전	말티 정보 용례	표준국어사전 등제어부	
염전	염정							소금		명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염도가 25%가 되어야 소금결정이 만들어진다. 소금은 제염하는 방법에 따라 자염, 천일염 등으로 구분한다. 자염은 전오제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이다. 전오제염법은 바닷물을 구워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천일제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인데, 천일제염법은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빛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먹는 {소금에다} 해서 식염이라고 인자 하죠. 잘잘한 놈이 더 식염에는 최고 좋은 거여. 첫 담는데 옅고, 굵은은 썩썩해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금 같은 규격은 잘 안 나오. 진물로만 좋은 돌만 내게. 끈돌이 들이 약한 놈이 들어가야 굵어지는 거여.		이정근(전북 부안)	표준국어대사전(1999)		0	0	
염전	염정							염전		명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농처럼 만든 곳. 천일염의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난차, 누대, 결정지라 부른다.	그러면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염전.}	전오제염법(자염)에서는 염전을 포함한 상위어로 '염장'이란 말을 씀. 염장은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로 염전, 염막, 염정, 해수저장지 등이 포함됨. 염정에는 염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간서지상의 염전을 비롯해 염도를 작은 단위씩 형태로 쌓아 간수를 추출하는 셋등, 여과장치인 셋등에 주입할 바닷물을 저장하는 해수저장지, 여과된 간수가 흘러와 고이는 염정, 아궁이에 가마를 걸고 소금을 굽는 실내 작업장으로서의 염막 등 다양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홍금수 2006, 142)	이정근(전북 부안)	홍금수(2006)		0	0	0
염정	행위자	행위자						여행이/염부	여행이	명	소금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옛날에는 '여행이'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염부'라고 부른다.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할이 다 있잖아 아니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행이}라 그랬어. {염부라고도} 부르고.	한자어로 '염부'라 부르기도 함. 그런데 오제염법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염부의 명칭을 구분함. '염한 또는 여행이'는 염부(가마솥)를 만들고 손질하는 사람이거나 가마솥에서 소금을 구워내는 사람이거나, '두루치기'는 개흙을 써래로 밀고 번지로 분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구덩이꾼, 팔경이꾼'은 상일꾼을, '우정이'는 자염 생산을 총관리하는 사람을 이룸.(김일기 2006, 19, 34)	이시성(전남 영광)	김일기(2006)/유승훈(2008)		0		
염정	행위자	행위자						염부장		명	소금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염부장이라고, 장 있고, 총 책임자 {염부장.}		이시성(전남 영광)				0	
염정	제염 방법	자염						셋등	셋등	명	자염을 만들 때, 염도가 높은 간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 간수 구덩이. 염전 내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개흙을 쌓은 후에 2~3m 깊이의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쪽에 점토로 단단하게 다지고, 내부에 목판을 대거나 그냥 둔다. 셋등 위에는 나무 기둥을 걸쳐 높은 다음 다시 그 위에 소나무 가지나 갈대(보릿대)로 엮은 거적, 솔가지) 등을 두껍게 덮은 다음 그 위에 염분 함량이 많은 황사를 덮는다. 셋등 위에 황사를 평평하게 하고 돌래를 쌓은 다음 그 위에다 바닷물을 부으면 해수가 황사에 침투되어 그 속에 함유된 염분을 여과시켜 농도가 높은 간수가 셋등 밑에 모여 흡수를 통해 흘러 나온다.(김일기 2006, 29) 나무 가지나 갈대(보릿대)로 엮은 거적, 솔가지)로 경계를 하는 이유는 바닷물을 황사 위에 퍼부을 때 황사가 거적을 통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간수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김일기 2006, 33)	바다 가에다 허거든요. 바다 가에 가서 조금 이 막치는 물이 거까지 다 안들어와요. 그 속에다 구멍, 이 통을 뚫어요. 바다 이 구멍을 파고, 땅을 일~, 파고 그 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다 해서 이 속에 움막을 만들었어요. 땅 속에다 굴이 들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자 그것보다 {셋등이라} 그래요. 셋등, 조금 때 이렇게 행을, 처저 바닷물을 깔아 놔. 쟁기로 싹 갈아놨다가 인자 물이 또 많이 들른은 물 적실 거 아닌가요? 적시는 흙에 소금 분말이 퍼요. 흙에서, 그러는 인자 그놈을 인자 또 조금이 막치잖아요. 그놈 고놈 막 물랐을 때 그놈을 갖다가 셋등 위에다 올려놔. 구덩이 판 자리 위에다.	경상도는 '셋', 강원도는 '간수통', 전라도는 '셋등', 충청도 서산, 태안 지역은 '간통'이라 부름.(유승훈 2008, 76)	이정근(전북 부안)	김일기(2006)/유승훈(2008)		0	0	

03 엽전 조사어휘(위진)

항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음역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엽전 정보 사자	엽전 정보 용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제염설 비	자연					염구멍이			명	지염을 만들기 위해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멍이를 뚫어 이르는 말. 섯등 아래에 소금물을 모아두는 곳은 물론, 섯등 위에 바닷물을 붓기 위해 바닷물을 모아두는 곳, 벌막에서 소금물을 굽기 전에 소금물을 두는 곳을 통틀어 이른다.	여 밑에 있고 여 잔물이 이 흠에 먹었던 간수가 돌로해서 빠지는 여가 탱크가 있지. 요 밑에 인자 같이 파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데를, 염구멍이지. 그 인자 여 간수 빠지는 데 {염구멍이라} 구다.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염구멍이를 구분하여 불기도 함. 섯등 아래의 염구멍이는 '짚물구멍이, 할랑'이라 부르고, 섯등 밑에 바닷물을 모아두는 구멍이는 '어어구멍이'라고 부름. 곁동은 충남 서산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어어구멍이는 남양과 인천 지역에서 부름.	최대수(전남 영광)			0				
							해주			명	(1) 벗집에서 소금물을 졸이기 전에,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멍이. = 염구멍이. (2) 천일염을 만들 때,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멍이.	옆에 가마솥 옆에 물이 구멍이가 또 있어요? 물 구멍이. 물 구멍이 그걸 뭐라 불렀어요? 해주. 물 모으는 자리. {해주.}		이정근(전북 부안)				0			
염전	제염설 비	자연					벌막/벗집	벌막/벗집		명	섯등에서 모은 소금물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피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장소. 150~200 여개의 소나무 기둥을 이용해 축조한 염막은 5m 남짓의 높이에 짚으로 지붕을 이었으며, 내부 면적은 50평 전후한 규모이다. 염막은 별도로 굴뚝을 내지 않고 지붕 중앙을 개방해 적염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궁이와 솥의 위치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연기 구멍에 빗거위치 시켰다. 염막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지붕을 갈아주지만 하면 10~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시설이었다.(홍금수 2006, 142) 제염장 안에는 염부, 염조, 굴출장, 염치장, 항수지 등이 있다.(김일기 2006, 30).	그 간수를 질러다가 인자 밑지개로 저다가 벗집으로 가. 벗집 탱크로 가서. {벗집} 철판 거르다 부서. 그리고 불 때, 밑에서 불 때서. 화목으로 때서 인자, 거 화행. / 아간 벗집이라면서요? 벗집이라고도 {벌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말리는 게.	한말과 일제시대 사료는 '부옥'이라 함.(유승훈 2008, 78)	최대수(전남 영광)	김일기 (2006)/홍금수(2006)/유승훈(2008)			0			
							웃집	웃집		명	벗집에 위에 이엉을 엮어서 만든 지붕.	가마가 여섯 평만한 놈에다가. 옥에는 {웃집을} 다 해놔오니깐, 우측으로 이어서. 영으로 엮어서 이어서 나무도 다 걸쳐서잉~다 이어놔어. 비 웃들어가게.		이정근(전북 부안)				0			
						이엉	영			명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	옥에는 웃집을 다 해놔오니깐, 우측으로 이어서. {영으로} 엮어서 이어서 나무도 다 걸쳐서잉~다 이어놔어. 비 웃들어가게.		이정근(전북 부안)				0	0		
	제염설 비	자연					철판			명	벗집에서 소금물을 졸일 때 쓰는 가마솥. 조선시대에는 가마솥을 썼으나 1950년대에는 미국의 드럼통을 넓게 펴서 잘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크기는 약 6평 정도이며, 사방에 철근을 이어 솥을 걸었다고 한다. 소금을 만드는 판이라 해서 '소금판'이라 부르기도 한다.	벌막인데 가마솥에 인제 만들어서 막 걸어서 인자 막 해서 {철판을} 해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물을 질러다 부서서 불을 때요. 불을 때면 인자 도수가 인자 이 심오도가 되어야 그것도 소용하는 거여. 때가지고 막 불 때면 이심오 되고, 소금 액체, 염기게 되는 불 막 깨버려요. 깨버리는 완전히 소금 되어 버려, 전부 물이.	엽날 간수를 가열하는 데에 쓰는 가마솥으로는 만드는 재질에 따라 토부와 철부, 석부가 있었음. 토부는 흙으로 만든 가마솥. 조개를 모아 구운 다음 빨아서 조개가루를 만들고, 조개가루를 간수로 반죽한 다음 나무 기둥을 걸쳐놓고 그 위에 짚(또는 대나무)을 깔고 그 위에 뚝개 끈 조개회를 얹게 깔아 토부 바닥을 만들. 조개회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가락(갈고리)을 만들어 굽기 시작한 조개회 사이에 넣고 끈을 만들어 위에 있는 기둥(갈침목)에 매어담. 이때 가마솥 밑으로 불을 서서히 지피면 조개회가 더욱 굳어짐. 또 나무를 제거하면 완전히 굳어짐. 그리고 끈(새끼나 갈피로 만들)을 매어 가마솥을 고정시킴.(김일기 2006, 23) 토분은 연료 소모율이 적고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과정이 힘들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음.(김일기 2006, 18) 내구성은 40일에 불과함.(홍금수 2006, 157) 철부는 철로 만든 가마솥. 철부는 여러 개의 철판 조각을 연결하여 만들. 토부에 비해 수명이 오래가나 녹이 잘 슬고, 연료소모율이 높은 단점이 있음.(김일기 2006, 18) 석부는 평평한 산석 혹은 비의 파편 등을 조개회로 칠한 뒤 굳혀서 만든 가마솥. 제작 방법은 토부와 비슷.(유승훈 2008, 86)					이정근(전북 부안)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영구	대역류	애역류	소역류1	소역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표준어	영역명	영역	영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멀티정보사지	멀티정보용성	표준국어사전특제어부	
	정염	자연						솔에	영	영	소금을 졸이기 위해서 첩판(가마솥)의 네 귀에 첩근을 얹어 고정시킨 후에, 첩판 주위로 솥을 돌리며 솥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다 쇠로 연결되어 딱 묶어서 말아 매는 거지. 그래갖고 옆에는 써지, 솥을. 솥을 만들어가지. 솥을 거는 거여. 쉽게 말하면.		이정근(전북부안)				0	0
	정염	자연				아궁이	부속		영	영	솔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연료를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시설로서 크기와 형태는 그 위치에 걸리게 되는 영부에 준해서 정해진다.(용궁수 2006, 158) 제염장의 땅을 정방형으로 파낸 뒤 황토흙과 석회, 그리고 돌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폭은 3척 4촌, 높이는 2척 8촌이다. 가마 아래와 접하는 부위 4곳에 구멍을 뚫어 불길이 여러 곳으로 퍼지게 하였다. 그리고 분구보다 아궁이 바닥을 낮게 하여 공기의 지나친 공급을 방지하였다.(유승훈 2008, 78~79)	{부석이라기도} 하고 막 그랬죠. 우리는 인자 애려서부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표준말 많이 썼죠. 우리는. 옛날 어른들을 사투리 많이 쓰고 우리는 표준말 많이 썼고.	아궁이'라 부르기도 함.	이정근(전북부안)				0	0
	정염	자연				꺾목	기록		영	영	불을 땀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실제 벗짐에는 꺾목이 없고, 지붕의 기운대가 비어 있었다. 연기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지붕을 뚫어 둔 것이다. 영부들은 그것을 '꺾목'이라 불렀다.	꺾목이지. 편야. {꺾목} 연기 나간다고. 그 보면 알아. 소금 굽는데. 연기 나는데.		이시성(전남영광)				0	0
영	정염	정염						난치	영	영	천일염을 만들 때의 제1증발지. 보통 바닷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지 근처에 있으며, 염전 중에서 가장 넓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저장한 저수지 물을 수리차를 이용해서 난치로 옮겼다. 난치의 배미는 600평 정도이며,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500평, 400평으로 배미의 평수가 줄어든다. 바닷물의 1/100만 소금으로 결정된다.	물에다 딱 넣으면 거시게 수리차 사람 올라가서 불은 물레방아 질로 돌아가. 물이. 그것은 인자 {난치로} 올라가지. 거기다 깔아줘. 이도 물을.		이시성(전남영광)				0	0
영	정염	정염						누태/누티	영	영	천일염을 생산할 때의 제2증발지. 난치와 결정지 사이에 있으며, 난치가 6단이라면, 누태는 4단 정도의 크기이다. 그에 따라 배미의 평수도 300평, 200평, 100평으로 줄어든다.	여섯 단은 제1증발지. 그 밑에 네 단은 누태. 제2증발지. 제1증발지는 뭐라고 불러요? 물 만드는 곳, 난치, 여그는 결정지, 난치, {누태}, 결정지./여 제일 밑에는 난치. 그 담에가 {누티} 그 담 소금 굽는 데가.		이정근(전북부안)/최대수(전남영광)				0	0
영	정염	정염						결정지	영	영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며,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 누태의 작은 평수인 100평을 절반으로 나눠서 50평을 한 배미로 만든다. 결정지의 배미는 작은 것이 특징이다. 배미가 크면 소금 결정이 바람에 의해 한 곳으로 몰리기 쉽다. 소금물이 배미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소금결정이 잘 된다. 그래서 배미의 평수를 좁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소금을 채취하기에 유리하다.	소금을 결정시킨다 그래서 결정지지, 이름이. 쉽게 말하면 물도 다 결정되고 헨다 해서 {결정지로} 되어 있어요.		이정근(전북부안)				0	0
영	정염	정염						물꼬	영	영	염전에서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물꼬는 보통 30cm 정도이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제보자는 옛날 방식인 모래주머니를 쓰지만, 요즘은 고무판을 쓰기도 한다.	일단 이단 상단이 물이 없잖아요. 사단에가 물이 있잖아요. 사단. 그것을 상단으로 물을 내려주어야 돼요. 예. {물꼬를} 막고. 이거는 도랑 미는 거.		이정근(전북부안)				0	0
영	정염	정염				도랑		도랑	영	영	염전의 배미와 배미 사이에 소금물이 흘러 내리는 좁은 개울. 염전에서 도랑의 구조는 복잡하다. 도랑에는 소금물을 모으는 해주로 가는 배수로와 뚫 쓰는 물을 버리는 배수로가 있다. 이 사이의 길은 물꼬의 모래주머니를 움직여서 만든다.	{도랑} 밑에 오잖아요. 저기서, 밑에 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내리는 건 요렇게 막고.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훨씬 낙차가 있어요. 칠천 낙차.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열면 내려가 버려요. 낮게. 여그다 뻥뚫힌거 같어도 다 그만큼 차이 있는 거예요. 이 배미고, 이 배미고. 그렇게 이놈 열면 알로 내려가 버려죠.		이정근(전북부안)				0	0
영	정염	정염				벽		벽	영	영	염전의 소금물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쌓은 언덕. 벽은 바닥에서 보통 15cm 정도이며, 소금물은 보통 벽의 70%~80% 정도 채운다.	이 위에다 염전이 있다 해서 막어 갖고. 우리가 막어 갖고. 깃물을 뚫 들어오게 {벽} 막어 갖고 딱 그 염전을 줘서.		이시성(전남영광)				0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염주	대분류	아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음	음역/음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염전정보 사진	염전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염전	제염법	염정						판	염	염전의 바닥. 염전의 판도 염도가 다르다. 난치, 누테, 결정지 순으로 짜며, 결정지의 판을 '짚판, 소금판'이라 부른다. 1950년대 자염에서는 가마솥 대신에 미군의 드럼통을 자른 철판을 이어 붙인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철판'이라 불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금을 생산하는 바닥을 '판'이라 부른 듯하다.	노랑 밑에 오잖아요, 저기서, 밑어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인자 이 높은 상단에서 이단. 비었으니깐 내려줘야죠. 짜지 짚판이라 벌써 소금이 일확천금이요. 그렇게 이놈 인자 내리면은 증발이 되죠. 짜지죠. 물이, 증발이 되어갔고, 그래서 내려주는 거예요. 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거 물을 내려요.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염전	제염법	염정				가복	가복	가복	염	염전 판의 가장자리. 염전의 가장자리는 바닥 중에서 먼지가 끼기 쉽다. 그래서 염전의 판을 닦을 때에는 대파와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가 작은 '가복솔'을 사용한다.	판 닦는 대파. 또 가복하는 가복솔, 가복솔? 짚판해 갖고 {가복} 깨끗이 몰아내야 허니깐, 막 갖게.	이정근(전북 부안)			0	0	0	
염전	제염법	염정					배미	배미	염	염전의 구획진 부분을 세는 단위. 대개 염전은 바닥판 모양으로 생겼는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룬다. 배미의 가장자리에는 바닷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둑과 도랑이 둘러져 있다. 염전 배미의 크기는 난치, 누테, 결정지가 각각 다르다. 난치의 배미는 600평에서 400평 정도이며, 누테의 배미는 300평에서 100평 정도이며, 결정지의 배미는 50평 정도이다. 그런데 서해안의 자염에서는 염전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깃발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미는 천일염 염전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게 이 {배미} 마다 도수가 다 틀려요. 찌꺼기, 오늘 내론 농, 날 내론 농, 예를 들은 어찌개 내론 농 다 도수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요?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염전	제염법	염정					단	단	염	염전의 구획진 부분을 세는 단위. 대개 염전은 네모난 모양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한 줄을 '단'이라 한다. 보통 난치와 누테, 결정지는 4단까지 있다. 결정지 쪽으로 단이 내려올수록 소금물의 염도가 올라간다.	일단 이단 상단이 물이 없잖아요. 사단에가 물이 있잖아요. 사단, 그것을 {상단으로} 물을 내려주어 돼요. 예, 물꼬를 막고.	이정근(전북 부안)				0		
염전	제염법	염정					철판낙차	철판낙차	염	염전의 배미마다 높이가 철판씩 낮아지는 차이. 난치에서 누테로, 누테에서 결정지로 소금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배미마다 높이가 낮아져야 한다. 대개 배미의 단마다 철판씩 낮게 만든다고 하여 '철판낙차'라 말한다.	밑어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내리는 건 이렇게 막고,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철판낙차} 있어요. 철판낙차, 예 그러니깐 여기서 열면 내려가 버려요. 낮게, 여그 다 뻗듯한거 같아도 그 단이 차이 있는 거예요.	이정근(전북 부안)				0		
염전	제염법	염정					염전머리	염전머리	염	저수지와 가까이 있는 난치의 첫 단(끝부분)을 이르는 말. 염전의 시작이라 하여 '머리'라 부른다. 그러나 '머리'에 상대되는 말로 결정지를 '꼬리'라 부르지는 않는다.	끝에서 올라, 양수 해가지고 짜~ 송수로라고 인자 송수로 물 버리는 곳. 그래가지고 송수로 보내 가지고 위에 가서 {염전머리,} 머리 가서 예비 저수지가 있어. 저기 이배이 채어 노면은 여기서 필요한만큼 끌어내리는 거여.	이정근(전북 부안)				0		
염전	제염법	염정					소금해주	소금해주	염	소금 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25% 정도의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 비가 와서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없거나 결정지가 비어있지 않아서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없을 때에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 대개 소금해주는 결정지 바로 옆에 있으며,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지붕이 있다.	그 밑에 치는 {소금해주,} 이런 뜻해주, 쉽게 말하면, 그 담 뒷물, 그 담 물 그 담 물.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염전	제염법	염정					뒷물해주	뒷물해주	염	소금물이 되기 전의 물, 곧 뒷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 대부분 누테 옆에 있다.	그 밑에 치는 소금해주, 이런 {뒷물해주,} 쉽게 말하면, 그 담 뒷물, 그 담 물 그 담 물.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염전	제염법	염정					수리차/수차	수리차/수차	염	바닷물을 저장해 둔 저수지에서 염전의 난치로 배방아 위에 올라가 한 발 한 발을 디디면, 물이 따라 올라온다.	옛날에 수리차여 그것이, 물자세라 그러고, 이쪽 염전에서는 수리차라고. 저 농터에서 물을 끌어 올릴 때 쓰는 물레방아, 사람이 물을 거시게 {수리차} 사람 올라가서 불은 물레방아 질로 들어가, 물이, 그것은 인자 난치로 올라가지.	전라도에서는 물레방아를 '물자세'라고 하는데, 염전에서 쓰는 물레방아는 '수리차, 수차'라고 부름.	이시성(전남 영광)			0		

03 엽전 조사어휘(위진)

엽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음역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정보 사전	말티 정보 용례	표준국어 사전 등재 여부
엽전	제엽도구	자명					주걱	주걱		명	소금물의 수분을 증발시킬 때에 쪄거나, 기풍이 일면 기풍을 떠내는 데에 쓰는 도구. 또는 가마솥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한곳에 모아서 담은 도구. 주걱은 방주걱처럼 끝이 둥그런 형태가 있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형태도 있다. 소금을 많이 풀 수 있도록 나무의 속을 파내어 쓰레받기처럼 만든 후에 자루를 연결한 형태도 있다.(유승훈 2008, 92)	쪄는 거 있잖아요. {주걱} 같이 쪄는 거. 가마솥 쪄는 거. 쪄야줘야 하니깐, 찬삼, 물을 증발시켜, 주걱날로 저야죠. 넣어 버리게. 언뜻 소금 다 뿜 때는 자꾸 쪄어서, 뜨면 글로 떠서 내버리면 되지.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도구	전명	전명				엽도계	보매		명	소금물의 엽도를 측정하는 데에 쓰는 도구. 한 말 이후에 들어온 보매는 유리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수은이 들어 있다. 대통을 가지고 간수를 쫓 뒤에 이 안에 엽도계의 하단부를 집어 넣는다. 엽도가 높을수록 수은이 위로 올라간다.(유승훈 2008, 92) 보매가 들어오기 전에는 송진, 황랍, 밤풀 등을 이용하였다. 나무 자루에 송진과 황랍을 섞어서 둥그런 덩어리로 만들어 줄을 매단 형태이다. 서산-태안에서는 '대통'이라 하는데, 대통을 간수에 담갔을 때 빨리 솟아오르면 엽도가 높고, 천천히 뜨면 엽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물이 몇 돈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썰로 알아야? 우리가 봐도 알지만, {보매로.} 비중기로 알아 봐요. 옛날에는 진짜 없을 때는 밤풀로, 밤풀 말려 가지고 막 묶어서 노은 몇 돈지 알 수 있어. 막 때요, 끝안지를 안해.	보매는 일본어 보매(ぼめ)에서 온 말로 판단됨.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도구	전명	전명				대파/대패			명	엽전의 판에 결정된 소금을 끓여서 모으거나 판을 닦는 데에 쓰는 도구. 가로로 놓인 긴 판자에 세로로 손잡이 막대가 달려 있어 'J'자 형태이며, 긴 판자의 아래 쪽에 고무가 달려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대파'라 부르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대패'라 부른다.	소금판에서 거뒀가지고, 그때 말 넘어갔을 때 대패 있잖아. 고무 {대파가.} 한 번 넣어 갖고 걸어갔잖아. 저쪽 길로, 글로 밀면 오아져./{대패로} 다 소금 오면 글로 모으지.		이정근(전북 부안)/이시형(전남 영광)		0	0	
엽전	제엽도구	전명	전명				가낙술			명	엽전 판(바닥)의 가장자리를 닦는 데 쓰는 술. 대파와 형태가 비슷하나, 엽전 판의 가장자리를 닦기 쉽게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또 가낙하는 {가낙술.} 쪼깐해 갖고 가낙 깨 곳이 올라내야 하니깐, 막 맞게.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도구	전명	전명				엽삼	엽삼	명	명	엽전 판의 가장자리를 파거나 막힌 도랑을 뚫을 때에 쓰는 삼. 도랑의 크기에 맞게 보통 삼보다 1/2 정도 작으며, 삼자루가 긴 것이 특징이다.	{엽삼은} 도랑도 파고 가낙도 꺾고 어디 흠 파다가 이런 디 벌리기도 하고 뚫고. 그런 디 다 필요해. 도랑도 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절단 난 디 보수도 하고, 엽삼은. 엽전 일은 짜른삼하는 허리가 잘 아프잖아. 잘 안 돼. 요즘은 쑥쑥 밀은 잘 들어가요. 쪼깐하니깐, 즉 말하면 좁은 디, 가에 좁은 데 도랑도 꺾고 그럴 때 필요한 거요. 엽삼 엽삼.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도구	전명	전명				물꼬망치			명	물꼬를 여는 데에 쓰는 갈고리. 형태는 갈고리이나 망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은 형태는 변하는데 말은 변하지 않은 언어의 특징을 반영한다. 물꼬를 막는 도구의 형태가 변하면서 물꼬를 여는 데에 쓰는 도구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전에는 물꼬가 돌림리와 같은 것으로 망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금은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어서 갈고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명칭만은 변하지 않고, '물꼬망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꼬망치라 그러. 물가고리라 않고 {물꼬망치.}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과	자명					개흙			명	개벌의 흙. 개벌의 흙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다. 개조금 때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른다. 그 흙 표면이 하얗게 염기가 생기는데 그것을 '소금꽃'이라 부른다.	흙을 인자. {개흙을.} 갯벌이라고 쉽게 말하면. 갯벌을 갖다가 놔두면은 조금 딱치는 트켜게 분이 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높으니까 지형이.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엽과	자명					갯벌			명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 갯벌은 토성에 따라 활판과 메판으로 나뉜다. 활판은 모래입자가 미세하여 매우 차진 개흙이다. 메판은 모래입자가 적절히 배합되어 찰지 않은 메진 개흙이다. 모래입자가 미세하면 염분이 개흙 속에 충분히 스며들지 않아 채광과정에서 염분농도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염전은 대부분 메판에 조성한다.(김일기 2006, 17~21)	흙을 인자. 개흙을, 갯벌이라고 쉽게 말하면. {갯벌을} 갖다가 놔두면은 조금 딱치는 트켜게 분이 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높으니까 지형이.		이정근(전북 부안)	김일기(2006)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원어	원어 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영진	제염과 정	자연					바닷물	갯물		영	바닷물을 이르는 말. 바닷물의 염도는 보통 2~3도 정도이다.	이 위에도 염전이 있다 해서 막어 갓고. 우리가 막어 갓고. {갯물을} 못 들어오게 똑 막어 갓고 막 그 염전을 췌서.	<표준>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흐르는 물'이라 하는데, 제보자는 바닷물을 '갯물'이라고 함.	이시성(전남 영광)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소금물	소금물		영	소금을 결정시킬 때에 쓰는 바닷물. 대개 염도가 25%가 되어야 소금물이 된다. 자연에서는 섯등을 이용해 염도를 높이고, 천일염에서는 햇빛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염도를 높인다.	다 증발 되어 버리고 백 대 일 백이, 백 대 일만 {소금물}이 되어 있어. 그것만 남은 거여. 쉽게 말하면 소금물은. 거서 소금 오는 거지. 즉 말하자면 석도가 증발되고 되고되고 내뿜서, 자꾸 올라갓고, 삼오도, 삼육도, 이삼도, 이삼사도까지 석도가 떨어져요. 그 높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오면은 이삼오도 딱 되는 거서부터 없어요. 그것이, 완전한 인자 소금. 소금만 뽁뽁뽁뽁 뽁거이 소금 또는 거여.	간수'라 부르기도 함.	이정근(전북 부안)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뿜물	뿜물		영	염도가 25% 이하의 소금물. 천일염에서는 염도가 25%인 소금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데, 염도가 25%가 되지 않아서 더 증발시켜야 하는 소금물을 '뿜물'이라 부른다.	뿜물이라는 것은 소금물이 인자. 이삼오도면 소금물이 된다고. 그 위에 따른 물이 삼오, 삼오도면 {뿜물이라고} 그래. 위에 따른 물 일게.	이시성(전남 영광)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진물	진물		영	염도가 25%인 소금물. 소금을 결정시킬 때, 염도가 25%인 소금물을 써야 소금 결정이 작게 나온다. 결정이 작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제보자는 '진물 뒤에 뿜물이 따라온다'는 표현을 쓴다.	찰찰한 놈이 더 식령에는 최고 좋은 거여. 찻 탕는데 뿜고, 굵은 뽁글뽁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금 같은 굵게는 잘 안나요. {진물로만} 좋은 물만 난게.	'뿜물'에 상대되는 말.	이정근(전북 부안)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끈물	끈물		영	염도가 이삼오도 이하인 소금물. 소금을 결정시킬 때, 염도가 이삼오도 이하인 소금물을 쓰면, 소금 결정이 크게 나온다. 결정이 작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끈물}이 물이 약한 놈이 들어가야 굵어지는 거여. 그것이 전라남도 소금을 보면 굵어진 놈 많조임~. 손 막 비비는 부서져요. 부서져부러. 우리 안 부서져요. 막그러려 하지, 부스르려 안 부서져. 물이 안 들어. 그 놈은 끈물질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어요. 소금 얇에가.	'끈물'에 상대되는 말.	이정근(전북 부안)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조금	조금		영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 자연에서는 조금 때 개흙을 모아 섯등을 만들어 소금물을 채취한다.	아~ 그것은 어췌게 하나은 음력 조수가 한 달이은 거시기 두 번씩 바까져. 보름 여섯을 그름 여섯을. 그럼 {조금} 때는 그거 갯벌을 모아서 놈을 데가 조금에는 물이 안 들어. 그런게 그때 갈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화령을 만들어. 그거 갓고.		이시성(전남 영광)				0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사리	산정	산정		영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자연에서는 갯벌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추출하기 위한 구덩이(섯등)를 만드는데, 사리 때에는 바닷물이 높기 때문에 섯등 근처 갯벌까지 물이 찬다. 그리고 물이 적은 조금 때에는 섯등 근처 갯벌까지 물이 들지 않아서, 갯벌이 마른다. 그래서 개흙에 하얗게 소금기가 서린다.	밀물이라고 하죠. 물 들어온다 하죠. 물 들어온다 그러은 되죠. 조금 인자 산정, 산정 조금 그랬어요. 물이 많이 들 때는 {산정} 조금 때는 조금. 옛날말로 지금은 그렇게 안 쓰지만.		이정근(전북 부안)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사릿밭	사릿밭		영	사리 즈음의 때.	그럼 {사릿밭은} 이 바다가 들이 높은 데라. 제일 높은 데라 사릿밭은 물이 갯물이 다 떠요. 이 뽁 뽁바다에, 물이 다 췌. 조금에는 물이 안 췌. 물이 적게 드니까.		최대수(전남 영광)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강이 나다	강이 나다		구	조금이 되어서, 바닷물이 섯등 근처의 갯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개흙이 마른다. 개흙이 마르면, 개흙의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가 서린다.	계속 들랑 들랑 들랑 하다가 조금 때는 못 들어오니깐 그것을 인자 {강이 나죠.} 개흙이 말렸단 소리지. 강이 났다는 소리.		이정근(전북 부안)					0	
영진	제염과 정	자연					분이 피다	분이 피다		구	바닷물을 머금은 개흙이 마르면서, 흙 표면에 소금기가 하얗게 결정된다.	흙을 인자. 개흙을, 갯밭이라고 쉽게 말하면. 갯밭을 갖다가 놔두면은 조금 딱치은 흐커게 {분이 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 오니까, 높으니까 지렁이, 물 많이 들 때만 들어오지. 덮이지. 조금 때는 여까지 못 들어. 분이 피. 하얗게.	분밭이 피다. 성애가 피다' 등으로 말하기도 함.	이정근(전북 부안)					0	

03 엽전 조사어휘(위진)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말	음역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정보 사지	말티 정보 용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엽전	제염과 염	자연						셋등갈다		동	조금 때 셋등 주위의 개흙을 쟁기로 갈고, 씨레를 이용해 셋등 위로 올린다. 분이 편 개흙을 셋등 위에 올려두면, 밀의 구멍이에 소금물이 고인다. 엽전 작업이 가능한 기간은 음력 8월에서 12월 까지, 23일부터 27일까지로 각각 5일 동안이었다.(유승훈 2008, 30)	그거 참 소 가지고 어드 가나 하은은 소금 내는 디 간다 하던가 바다 {셋등갈라} 간다 그러던가, 그러든 말 나오기 쉽조, 셋등이라 소금 내는 자린지 아니깐, 옛날 사람들은.	문헌에 의하면, 자연의 작업 과정은 '엽발갈이'로 표현. 엽발갈이는 엽전면을 쟁기로 뒤집고, 씨레로 끌고 다녀서 햇빛을 골고루 받게하는 일.(홍금수 2006, 168) 엽발을 갈면 하부의 흙이 뒤집어 지면서, 엽분의 농도가 올라감.(김일기 2006, 22) 그리고 엽발갈이는 세부적으로 '씨레질, 쟁기질, 나래질, 셋등 진압, 가선 두르기'로 나뉜다. '씨레질'은 씨레를 이용해 엽전의 개흙을 분쇄하는 일. 쟁기질과 씨레질로 엽전면은 이완되고 강렬한 태양에 자연 건조됨. 모세관 인력의 작용으로 하부의 염기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엽분의 농도는 질어짐, 초발갈이, 두발갈이로 행해지는 씨레질은 3~5일간 지속.(홍금수 2006, 168) '쟁기질'은 쟁기를 이용해 굳어진 엽전면을 가는 일이며, '나래질'은 나래를 이용해 소금기 있는 개흙을 셋등으로 모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셋등에 올리고, 다지는 일은 '셋등 진압'이라 함. 또한 셋등의 가장가리는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토라테를 두르는데, 그것을 '가선 두르다'라고 말함. 마지막으로 셋등 위에 바닷물을 부어 주면, 셋등의 염구멍이에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모일.	이정근(전북 부안)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선일하다		동	소에 멩에를 씌워, 쟁기로 밭을 갈다. 논이나 엽전에서 소로 쟁기질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옛날 말로. 논 가는 것도, 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일한다 그래요. 천양 논도 소로 갈았잖아요. 그러니 못 해? {선일했어} 그러지. 사투리말로 하는 거죠, 그것은. 쟁기질이라 않고 선일한다 그러지.	이정근(전북 부안)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면을 잡다		구	셋등 위에 올린 흙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다듬다.	인자 그때는 씨레로 전부다 삼으로 요리지라 옮겨서 {면안 잡지.}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갈라 그래. 왜냐하면 흙을 보살보살 만들어놨는디 거 가서 사람이 다져붙은 물이 안 빠지잖아, 물이.	문헌에서는 '가선 두르다'라고 함.	최대수(전남 영광)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간수가 빠지다		구	셋등 위에 올린 흙에 바닷물을 부으면, 셋등 밑의 구멍이로 소금물이 빠지다.	어 밑에 있고 여 짤 물이 이 흙에 먹었던 {간수가 흘러서 빠지은} 여가 탱크가 있지. 요렇게 인자 깊이 파서.	최대수(전남 영광)	0	0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간수 길다		간수(물) 지르다		구	셋등 밑의 구멍이에서 바가지를 이용해 소금물을 퍼서, 벌막의 해주로 옮기다.	그 당에 인제 구멍에서 이렇게 물을 들렸잖아요. 그거 뭐 한다 그랬어요? {간수 질러온다} 그래야 돼. /천상 셋등 속~에서 {물 질러} 오니깐 그까이 밖에 물라요, 우리는. 천상 셋등에서 이렇게 등에서 지금 등 속~에서 물 빼오니깐.	이정근(전북 부안)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발을 떠다		구	벌막의 철판 위에 소금물을 붓고, 소금물을 옮기기 위해 발을 지피다.	이 옛날 소금 그냥 나오는 화렴이라 그래갖고 {발을 떠서} 만드는 것이. 조금이 딱치는 흙을, 소로 흙을 갈아요. 발을 막 갈아, 여 얹어놔.	이정근(전북 부안)		0	0		
엽전	제염과 염	자연						등 나다		구	(1) 가마솥에 소금물을 들일 때에,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인다. 등이 보이면, 그 소금은 쓴맛이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소금물을 소금 위에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덧물 주다'라고 한다. (2) 천일염에서 소금이 결정될 때에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인다. 등이 보이면, 그 소금은 쓴맛이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소금물을 소금 위에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덧물 주다'라고 한다.	소금판이 소금이 보일 때 {등 나서} 물이 얹어졌을 때 그때 막 넣어 줘야 돼요. 물 등 안 나갔고용. 그러면 물 주는 대로 소금이 오고 있어요.	이정근(전북 부안)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영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령말	음용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멀티정보 사진	멀티정보 음성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영	관	관						덧물 주다		구	소금 결정이 만들 때,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이지 않도록 소금물을 더 부여준다.	고농 때서 차꾸 {덧물을 줘야} 혀, 또. 끓을 때 요놈만 끓으면 써서 못 먹잖아요. 이 물을 써 가, 차꾸 줘, 물이 많아지는 쪽쪽.		이정근(전북 부안)				0	
영	관	관						물 넣어준다		구	(1) 철판에 소금물을 더 붓다. 소금의 등이 나면 소금물 덧물을 주는데, 그것을 '넣어 준다'라고 한다. (2) 염전의 판에 소금물을 더 붓다.	여그도 덧물 줘야 한다 안해? 여그 소금 내는 것도 덧물 줘야 돼. 등나면 바로 좋은 {물 넣어줘야} 돼.		이정근(전북 부안)			0		
영	관	관					거품	버름		명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거품이라. 천상 거품이죠. 버름이라도 그러기도 하고. 저기 {버름} 있네.		이정근(전북 부안)			0		
영	관	관						소금 뿜키다		구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소금 결정은 염전의 판이나 가마솥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소금이 물 위로 뜨는 경우에는 대파나 주걱으로 가라앉힌다.	벌막인데 가마솥에 인제 만들어서 막 걸어서 인자 막 해서 철판을 해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물을 질러다 부셔서 볼 때요. 볼 때엔 인자 도수가 인자 이삼도가 되어야 그것도 사용하는 거여. 때 가지고 막 볼 때엔 이삼오 되고, {소금 뿜개}, 영키게 되면 볼 막 꺼버려요. 꺼버리면 완전히 소금 되야 버려, 전부 물이.		이정근(전북 부안)			0	0	
영	관	관						물 빠지다		구	결정된 소금에서 물기를 빼다. 철판에서 소금을 결정시킨 후에, 주걱으로 철판의 소금을 긁어 앞의 상태가 위에 올려 둔다. 그러면 결정된 소금에서 물기가 빠진다. 소금 결정에서 빠진 소금물은 다시 벌막에 있는 영구덩이에 부어서 재사용하기도 한다.	땀에다 그냥 땀에다 싸 댕요. 소금 모으는 곳이죠. 거다 인자 싸노는 {물이 빠지면} 거기서 파는 거죠. 거기도, 벌막 한 테 옆에, 바로 옆에 가있지. 그 바로 그내보다가 물이 빠지는 파는 거죠.		이정근(전북 부안)			0	0	
영	관	관						물 내리다		구	염전에서 소금물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기 위해 난치에서 누대, 결정지로 바닷물이 올라가다. 염전 각 배미의 높이가 철전씩 낙차가 있기 때문에, 배미의 물고만 열어주면 물이 아랫 배미로 내려간다.	누대, 난치 몇 발 가서 물 내려라. 뭇 단이, 누대 뭇 단 물을 내려라. 결정지 뭇 단에 가서 {물을 내려라} 이렇게 시킬 때 쓰는 용어여.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정근(전북 부안)			0	0	0
영	관	관						갈갈이		명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어 염도를 25%까지 올릴 때, 15%에서 24% 사이의 바닷물에서 떨어지는 돌가루.	바닷물애가 마흔 몇 가진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이 흙 같은 땀이 떨어져요. 땀, 땀줄, 흙을 처음에 땀물에서 즉 말하면 도수 약한, 땀이 떨어져라고 여 오다가 삼오도가 막 되면은 석고가 생겨, 인자, 거서부터는 석고가 떨어져져 돼. 석고가 석화가 떨어. 석고가 떨어져져 석고잉, 즉 말해 고짐이라 석고여, 석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그다 갈아도 되어, 갈갈이,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갈갈이라고} 그래. 우리가 쉽게잉 갈갈이 차꾸 보고 갈갈이 몰아내고 갈갈이가 떨어져졌다 그래.	석고, 석회, 돌가루'라 부르기도 함.	이정근(전북 부안)			0	0	
영	관	관						소금 뜨다		명	소금 결정이 만들어져서, 소금물 위에 떠다 가라앉지 않다. 이렇게 물 위에 뜬 소금을 '소금 꽃'이라 부른다.	석회, 저렇게~ 찌갓고 있는 거여. 그 농이 완전히 떨어져지고 나오면은 이삼오도 막 되면은 거서부터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인자 소금, 소금만 뿜뿜뿜뿜뿜 거기여 {소금 뜨는} 거여. 그 농 물을 써 소금을 내야 깨끗한 거고.		이정근(전북 부안)			0	0	
영	관	관						소금이 오다		구	염도가 25%의 소금물이 햇빛이나 열에 증발되어 소금으로 결정된다. 천일염은 음력 5월에서 6월 사이에 결정이 잘된다. 이때의 소금은 크기도 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손으로 눌러 보았을 때에 소금 알갱이가 깨지지 않는다.	이삼오도부터서 {소금이 오거든.} 그러니깐 그마만큼 인자 찌진게 덜 짠 이삼오도부터 이삼칠팔도부터 모든 소금은 짠 기준에 온 소금은, 들 짠 그런 이삼오도에 온 소금은 틀려. 소금발이 굵고 잘고 그러니, 뽕 가를 소금은 소금발이 적고.		이시성(전남 영광)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명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방법	음역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정보사전	말티정보용선	표준국어사전 등재여부
명 1	염 1	염 1						소금밭		명	소금 결정의 크기. 소금 결정은 일기와 바람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흐린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소금 굵기가 작고, 소금이 잘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날서풍이 불 때에는 소금 굵기가 굵어진다. 그리고 동풍이 불면 날이 추우니까 소금의 굵기가 가늘어진다. 그리고 북풍이 불면 날이 좋으니까 소금의 굵기는 굵어지고, 그 양도 많아진다.	우리가 칠팔월 소금은 {소금밭이} 굵어요. 인자 지대로 인자 밑에서 올라온 지열하고 인자 짠 거로 해서 그 도수가 이삼오두부터도 소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소금밭이 굵어. 그러니까 이게 맛을 봐도 입에 넣고 맛을 봐도 그때 소금은 간질간질한 맛이 나고 뽕 가들은 쓴 맛이 나고 느낌에 그냥, 도수가 높기 때문에. 염도수가 높아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수(전남 영광)			0		
명 1	염 1	염 1					(물)잡아 넣다			구	만들어 놓은 소금물을 뒹뒹해 주나 소금 해주로 넣다. 비가 와서 소금을 결정시킬 수 없거나 소금을 결정시킬 결정지의 소금판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해주에 저장해 둔다. 그때 소금물을 해주에 저장하는 것을 '잡아 넣다'라고 말한다.	해수 이거 {잡아 넣다는} 거죠. 도수 맞아서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다 이인 거여. 빗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뒹뒹, 뒹뒹을 갖다 가다 뺐은게 비 끝나면 기계로 돌려서 인자 이렇게 푸는 거여.	이정근(전북 부안)			0		
명 1	염 1	염 1					소금 걷다			구	결정지에서 결정되어 소금판에 붙은 소금을 대파로 긁어내어 가운데로 모으고, 염삼으로 퍼서 거두다.	예, 걸어요. 소금을 모은다 아니고 걷는다고 사투리여. 모은다는 것은 저그지. {소금을 걷어라} 그래야죠. 모아라 그래 안해. 걸어가지고 인자 모으는 거지. 모으는 것이 뽕게 싸는 것이 모으는 거고.	이정근(전북 부안)			0		
명 1	염 1	염 1					식염			명	식용할 수 있는 소금.	먹는 소금이다 해서 {식염이라고} 인자 하죠. 그니까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염전.	한자어 '식염(食鹽)'에서 온 말인데, 제보자들은 모두 '염(鹽)'의 발음을 '령'으로 하고 있음.	이정근(전북 부안)			0	
명 1	염 1	염 1				자염		화염		명	바닷물을 줄여서 만든 소금. 염전조성 단계, 채취단계, 전오단계를 거쳐 소금을 생산한다. 채취 단계를 위해서는 염전을 조성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갯벌을 이용하였다. 염분 함량이 높은 염수를 얻기 위해 조공 때를 이용하여 갯벌로 된 염전을 소가 끄는 썰레를 이용하여 밭 차례 간다. 그 다음에 번지로 개흙 덩어리를 분쇄한 다음 해수를 뿌린다. 이같은 작업을 밭 차례 반복하여 개흙의 염분 함량을 높인다. 염분함량이 높아진 개흙을 섯등으로 운반하여 염수(간수)를 빨아내어, 벌막으로 옮긴다. 벌막 속에 장치된 소금가마솥에 간수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소금이 응결된다.	옛날 소금 그냥 나오면 {화염이라} 그래갖고 불을 때서 만드는 것이. 조공이 막치은 조흙을, 소로 흙을 갈아요. 빨을 막 갈아. 천상 덩어리 심기는 심건대로 갖다가 증발을 시켜야 되고, 도수가 쫓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시키는 소금 좀 많이 오고.	이정근(전북 부안)			0		
명 1	염 1	염 1						육염		자염	자염의 또 다른 이름. 중국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뜻하는 '청염'에 상대되는 말이다.	막 불 때는 이삼오 되고, 소금 염개. 영키게 되면 불 막 꺼버려요. 꺼버리는 완전히 소금 되어 버려. 전부 물이. 그래서 {육염이} 되어, 육염이라고도. 그리고, 육염, 쉽게 육염이라고 옛날에. 화염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놈이 인자 먹을 때 육염이라 해. 우리 한국말로로는 처음 알로는 전라도 말로 육염 그래, 육염.	이정근(전북 부안)			0		
명 1	염 1	염 1						빨소금		명	조공 때에 소금기가 핀 개흙을 썰레로 쓸다가 개흙을 털어내고 만든 소금. 소금기가 핀 개흙을 물에 담가 개흙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든 소금물을 먹었다. 가장 현시적인 소금 채취 방법으로, 자염이 발달하기 전에는 빨소금을 먹었다고 한다. 제보자들도 어렸을 때 자염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빨소금을 먹었다고 한다.	{빨소금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썰썰썰썰 그 영키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 하해. 그은 이거 말었다고 이렇게. 그거 밭자루로 썩썩 쓸 방법으로. 자염이 발달하기 전에는 빨소금을 먹었다고 한다. 그거 모더져요. 그럼 그걸 갖다 소금 나기 전에는 옛날엔 그걸 소금 비싸니까 화염은 비싸니까 그걸 쓸여다가.	최대수(전남 영광)			0		
명 1	염 1	염 1						천일염		명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바닷물을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결정시켜 만든다. 1907년 인천 주안에 천일염방법이 처음 소개되면서 자염법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다른 말로 청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천일염 요새 {천일염이라} 그래. 요새 나는 편야 염판에 나는 것은 천일염이여.	이시성(전남 영광)			0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명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발음	음역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정보 사지	말티 정보 용선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염전	해류	염전류	염전					재제염		명	거칠게 만든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다시 끈 소금. 천일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빛깔이 희고 맛이 약간 쓰다.	꽃소금이란 것이 {재제염이여.} 쉽게 말하면, 재제염 이이 소금을 갖다 녹해서, 천일염을 갖다 녹해서, 다시 끓여서 그것을 건져야. 옛날처럼 화염, 자연 내듯이 그런 식이지 불 때서 화염으로 그런식으로 다시 해서 꽃소금이 나오는 거요.	꽃소금'이라 부르기도 함.	이정근(전북부안)			0		
염전	해류	제염류	염전					사람		명	먹을 수 없는 소금. 바닷물을 증발시킬 때에 뒤편을 주지 않아서, 소금에 쓴맛이 강해진 것을 이른다.	등나불은 소금도 안 오지않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 나쁘면 {사람이} 와요. 못 먹는 사람, 그것은. 일본말로. 니가리.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와요. 물 나쁠 때, 등 나은, 전라남도는 그냥 와서 못 먹어. 미역 공장오르나 들어가지, 미역 공장 그거 있어야 좋다 쉽다. 사람은 있어야, 쓰니깐.	이정근(전북부안)			0			
염전	해류	시기						송화가루소금		명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생산한 소금. 일 년 중 날이 가장 건조하여서, 질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인자 또 한 가지는 그 {송화가루소금} 송화가루, 솔잎에서 땀 때 꽃 여 제방, 여러 가지로 피어나잖아요. 그러는 노란물이 날라들잖아요. 그때가 그것보다 송화가루소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계절에가 즉 말하자는 제일 많이 오는 때여, 소금이, 왕성하게 잘 오고 날이 그날 즉 말하든 질로 건조하는 때여, 때가, 그날, 날이 때가.	이정근(전북부안)			0			
염전	염광염비	재원					(참)조기			명	(1) 민어과의 부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 참조기. 보통 9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잡으며, 동짓날 전에 잡힌 고기는 알이 없고 등이 흰 반면에, 동짓날 이후에 잡힌 고기는 알이 차고 등이 누렇다. 전라남도에서는 참조기만을 조기라 부른다.	에~ 아까 말대로 반어나 어~ 부서나 이런 것은 조기과. 예를 들면 고양이과 하면은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여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인자 사실은 참조기라 그러는데 참조기 말고 또 참 {조기}는 없거든요./인자 우리가 아 그 {참조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금물을 들여놓듯이 노란빛이 나죠.	조기는 우리 나라 동해에는 없고 서남해에서만 나는데 곡우 전후에 때를 지어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회유하며 이의 어획은 호남의 칠산에서 시작하여 해서의 연평해에서 성하고 관서의 덕도(德島) 전양에서 끝난다고 함.<문화원형사전>			0	0		
염전	염광염비	재원				수조기	반어			명	민어과의 물고기. 조기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며, 누런빛을 띤 적색이다.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양새~가 색깔도 다르고, 그 {반어} 같은 것은 무늬가, 무늬가 있어요.	김현웅(전남영광)				0	0	
염전	염광염비	재원				부구치	백조기			명	민어과의 물고기. 몸의 길이는 30cm 정도로 참조기와 비슷하나 몸이 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백조기'라 불린다.	그리고 또 인자 백조기라고 조기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예요, 그래서, 부구치를 {백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예요.	김현웅(전남영광)				0		
염전	염광염비	재원				황강달이	황시리			명	민어과의 물고기. 몸의 길이는 30cm 정도로 참조기와 비슷하나 머리가 크고, 꼬리가 가는 것이 특징이다.	{황시리}는 인자 조기같이 노란색은 가졌는데 모양새가 달라요. 머리가 크고 몸치가 아주 가느다란하구 그렇습니다.	김현웅(전남영광)				0		
								칠산어장		명	전라남도 영광군 칠산면 앞바다에 있는 어장. 우리나라 3대 어장 중 하나로, 옛날에는 참조기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근처 범성포에서는 칠산어장에서 잡힌 참조기로 굴비를 만들었다.	옛날~에는 여기 범성포에서 바로 이 {칠산어장}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에~ 극소수로 잡히고 요즘은 인자 제주도 근해에서 잡힙니다.	김현웅(전남영광)				0		
염전	염광염비	관						삼마이 그물		명	조기를 잡는데 쓰는 그물. 200m에서 1000m의 그물을 넓게 펼쳐서, 그 사이에 걸리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 위에는 스티로폼의 우끼를 달고, 아래에는 돌이나 납으로 된 추를 단다.	그 {삼마이 그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그~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 아구리를 벌려서 잡는 것이 있고, 또 인자 외줄로 쭉~ 늘어가지고 이백메타 오백메타 막 천메타 이라고 길게 배때 뉘가지고 잡는 거 있고 그러죠. 근데 인자 아까 이백메타 삼백메타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잡는 것이 조기 그물이예요.	삼마이'는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추측됨.	김현웅(전남영광)				0	

03 염전 조사어휘(위진)

염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말	음역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염전 정보 사진	염전 정보 용성	표준국어 사전 특제어부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우끼		명	삼마이 그물의 위쪽이 바다에 뜨게 하기 위하여, 그물 위에 붙인 스티로폼을 이르는 말.	그냥 저~기다가 그~ 우끼를 스티로폼 {우끼를} 달아놓고 밑에는 돌을 달고 그러면 인자 우끼는 떠있고 밑에는 남으로 된 금, 추를 달아 노니까 이렇게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기가 이렇게 당기다가 걸리는 거죠.		김현웅(전남 영광)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추		명	삼마이 그물의 아래쪽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기 위하여, 그물 아래에 붙인 돌이나 남을 이르는 말.	그냥 저~기다가 그~ 우끼를 스티로폼 우끼를 달아놓고 밑에는 돌을 달고 그러면 인자 우끼는 떠있고 밑에는 남으로 된 금. {추를} 달아 노니까 이렇게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기가 이렇게 당기다가 걸리는 거죠.		김현웅(전남 영광)			0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선별을 하다		구	굴비를 만들기 위해 조기의 크기를 구별하다. 조기의 크기에 따라 소금의 양과 간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조기의 크기를 구별한다.	해동시켜서 인자 그 {선별을 하죠.} 크기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소금 염해서.		김현웅(전남 영광)			0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염하다		명	조기를 소금에 절이다. 조기는 크기에 따라 세 시간부터 열다섯시간까지 절인다.	해동시켜서 인자 그 선별을 하죠. 크기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소금 {염해서.} 소금 염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그대로 염한다고 그러죠.		김현웅(전남 영광)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살간		명	조기를 절이는 방법의 하나. 먼저 발을 놓고 그 위에 조기 한 두를 올리고, 소금을 적당량 뿌린 다음 그 위에 다시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절인다. 독간에 비해서 살간이 간이 고르게 배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살간을 한다.	거 인자 조기를 사다가 아~ 소금 뿌리면서 그 독에다가 자꾸 쟁어요. 그래서 인자 간을 하는 거 있고 또 살간이라는 것은~ 인자 발을 놓고, 올 밑에다 깔고~ 조기 한 두를 놓고 소금 하고 조기 한 두를 놓고 소금 하고 해서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인자 물이 쪽 간이 먹으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살간이라} 그래요.		김현웅(전남 영광)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독간		명	조기를 절이는 방법의 하나. 독 안에 조기를 넣고, 소금을 적당량 뿌린 다음 다시 그 위에 조기를 넣는 방식으로 절인다.	옛날에 그 독간 있고 살간 있고 그러거든요. {독간이라는} 것은 큰 구덩이, 거기다가 인자 그 소금 뿌리고 조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안 빠지게, 물이 빠질 수가 없이, 독이니까~ 거기다 넣고 간을 하는 거고.		김현웅(전남 영광)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워걸이	워걸이	명	(1) 조기를 새끼줄로 열마리, 스무마리씩 묶는 일. (2) 열마리 스무마리씩 묶여져 있는 굴비.	시간이 되면 워걸이죠. 그 워는 뭐 할한다 그래요? {워걸이라} 그래요. 인자 그 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와서 워어워요.		김현웅(전남 영광)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관					걸대에 걸다		구	조기 워걸이를 말리기 위해서 건조장 걸대에 매달아 놓다. 이때 걸대는 그늘지고 바람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하며, 날파리 등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옛날에는 해풍에 말렸다고 한다.	인자~ 한 두 번 세 번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걸다에 겁니다. {걸대에다 걸어서} 아~ 물을 한 칠삼프로 정도 빼요.		김현웅(전남 영광)			0	0	
염전	염광 염비	염광 염비	부					굴비		명	소금에 약간 절여서 툇으로 말린 조기. 굴비는 전남 영광군의 특산품으로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다.	{굴비는} 하나 그 우리가 항상 들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그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신선한 것을 구입해야 돼. 조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 제 맛이 든 고기. 그 살았던 것을 추웠었다는 일화도 있는 동지가 넘어서 산 고기가 제일 맛이 들 어있었습니다.	조기는 여러 가지로 가공되어 소비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굴비가 가장 유명하였고 지금도 그러함. 『중보산림경제 增補山林經濟』에 의하면 소금에 절여 통째로 말린 것이 배를 갈라 말린 것보다 맛이 낫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굴비임. 고려시대의 책인 이자경(李資諤)이 왕을 모해하려다가 탄로되어 1126년(인종 4) 정주(靜州 지금의 영광)로 유배되었는데 그 곳에서 굴비를 먹어 보고는 그 맛을 모르고 개경(開京)에 살았던 것을 추회하였다는 일화도 전함. 정주굴비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영광굴비가 이미 고려시대부터 유명하였음을 알 수 있음. 곡우 때 잡힌 산란 직전의 조기는 '곡우살 조기' 또는 '오사리 조기'라 하여 가장 좋은 일품(逸品)으로 치고 있으며 이것으로 만든 굴비는 '곡우살 굴비' 또는 '오가재비 굴비'라 하여 특품으로 취급됨.<문화원형사전>	김현웅(전남 영광)			0	0	

03 엽전 조사어휘(위진)

엽전	대분류	어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림말	음운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정보사전	말티정보용선	표준국어사전특제어부
엽전	명	명	명					보리굴비		명	보리 사이에 넣어서 절인 조기.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독 안에 보리를 깔고 조기를 얹고 소금을 뿌리고, 다시 보리를 까는 방식으로 조기를 절였다. 보리를 넣어서 말리면, 보리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촉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황태처럼 겨우내 해풍에 말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냥 '굴비'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냉동굴비와 구별하기 위해 '보리굴비'라 부른다.	인자 보리굴비 {보리굴비} 하는데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려서 어 보리 속에다 저장했다가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냥 놔두면 부패가 되니까. 예~ 보리 속에다가 이런 독에다가 차곡차곡 보리 넣고 굴비 말린 놈 넣고 해서 쟁여놔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인자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말려서 보리를 말려서 너면은 수분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보면 또 영기. 굴비가 들어가면 영기가 있으니까 보리도 바게미도 안 나고.		김현웅(전남영광)		0	0	
엽전	명	명	명			두름		장줄		명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짐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굴비를 판매할 때에 쓰는 용어이다.	{장줄이라는} 거 인자 이십미 짜리를 장줄이라 그러죠. 여기 이십미.		김현웅(전남영광)			0	
엽전	명	명	명					오가		명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짐으로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조기가 큰 경우에는 다섯마리씩 엮는다. 굴비를 판매할 때에 쓰는 용어이다.	{오가는} 인자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묶은다. 그래서 그거 합하면은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열 마리죠. 그래서 여가 우리가 붙여논 거죠. 이것을, 상품명을.		김현웅(전남영광)			0	